 금융위원회	<h1>보 도 자 료</h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책 임 자	금융위 글로벌금융과장 탁 윤 성(02-2156-9780)	담 당 자	현지은 사무관 (02-2156-9783)

제 목 : 금융안정위원회(FSB) 도쿄 총회 결과

1. 개요

-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2016.3.30~31일 금융안정위원회(FSB)* 도쿄 총회에 참석하였음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G20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금융 규제·감독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

- 금번 총회에서는 24개국 및 EU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금융분야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금융위기 이후 급성장한 자산운용업의 감독방향을 결정하였으며, 그간 국제사회의 금융개혁 경과를 점검하였음

2. 주요 논의결과

- FSB는 전세계의 성장 둔화, 자금공급 위축, 통화정책 다변화가 최근 시장의 위험기피를 심화시켰다고 진단하였으며,
 -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른 신흥국 등의 저성장 기조로의 전환, 높은 기업부채 수준, 글로벌 무역 둔화 등이 맞물려 동반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을 우려하였음

- 또한 '15.3월 프랑크푸르트 총회시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요인으로 평가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불일치'를 사전 관리하기 위하여,
 - * 투자자의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가 비유동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기초자산보다 펀드 수익증권·지분의 유동성이 높은 문제

- 금번 회의에서 감독당국이 자산운용사의 펀드 유동성 관리 체계를 감독하고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하는 자산운용업 FSB 정책권고안 초안을 논의하였음

- FSB는 금년중 거시건전성 정책경험 분석,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가이드라인, 중앙청산소 정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 새로운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금융위기 이후'(post-crisis) 체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
- 금번 총회에서는 지난 '15.9월 런던총회 이후 관련 국제기구의 경과를 보고받고, 향후 검토 방향에 대해 지시하였음

-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핵심 취약요인 해소를 위한 국제기준 등 이행에 집중하되,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국 당국의 재량을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또한, 거시건전성 감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경험 공유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 신흥국의 기업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조언하였음

※ 자세한 FSB총회 논의내용은 첨부한 FSB 보도자료 참조

참고

금융안정위원회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1. 금융안정위원회(FSB) 개요

-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G20으로부터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 및 금융규제 개선의 임무를 부여 받아 G20이 정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세부적인 국제기준을 마련하는 협의체
 - '11.11월부터 **영란은행 총재 Mark Carney**가 FSB 2대 의장 수임 중
 - * 초대 의장 : 現 유럽중앙은행 총재 Mario Draghi

FSB의 설립 경위

- (FSF) FSB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안정포럼(FSF : Financial Stability Forum)은 '99.4월 G7 재무장관회의 결과 금융 감독 및 검사 분야의 정보교환과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적 금융안정을 추진하고 금융위기를 예방하여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창설
- (FSB로 확대개편) '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흥 경제국의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G7이 주축인 FSF를 G20 국가가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09년 4월 제2차 런던 정상회의에서 FSB로 확대 개편에 합의하여 '09년 4월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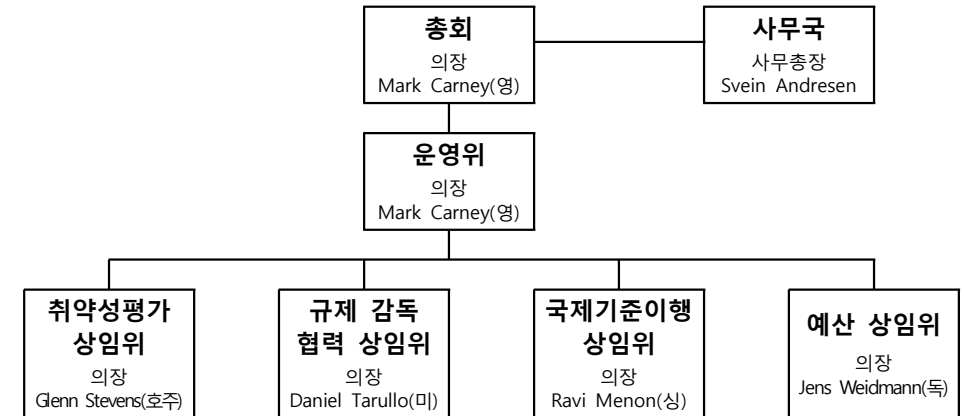
- (FSB의 목적) 주요국 금융당국, 국제기준 제정기구 등의 감독방향을 조율·선도함으로써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처
 - 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규제·감독 정책 등을 개발하고, 각국의 의견과 경험을 교환

FSB의 기능

- ① 금융규제정책에 대한 조언과 감시
- ② 금융규제기준 준수의 모범사례(best practice) 관련 조언과 감시
- ③ 국제기준제정기구(BCBS, IOSCO, IAIS 등)와 공동 정책개발
- ④ 공동감시단(supervisory college)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국가간 위기관리(cross-border risk management) 비상계획 수립 지원
- ⑥ 조기경보활동(Early Warning Exercises) 수행[IMF와 공조]

2. FSB 구성 및 한국 참여현황

- (FSB회의체) 모든 회원기관이 참여하는 **총회**와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운영위원회**, 분야별 4개 상임위원회로 구성



- (회원현황) 24개국 및 EU*의 59개 회원기관(금융당국, 재무부, 중앙은행)과 10개 국제기구** 참여

*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인니, 한국,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 남아공, 터키, EU (이상 G20) 및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 OECD, BIS, IASB, CGFS, CPMI, IMF, World Bank, BCBS, IAIS, IOSCO

- (참여현황) 금융위원회는 '09년6월 FSB에 가입하여 총회, 운영위원회 및 규제 감독 협력 상임위원회 등 참석

- 금융위원회와 공동가입한 한국은행은 총회와 취약성평가 상임위 참석
- FSB논의 참여를 통해 금융선진국과 국제기구가 정한 금융규제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rule taker에서 국제 규범을 제정하는 rule setter로 위상 제고